揆園史話

규 원 사 화

▣ 一沙 權 正 孝 옮김

(지난호에 이어)

爾時, 一大主神, 乃拱手默想曰: [如今, 宇宙大塊, 冥翊已久, 混元之氣, 包蘊停 , 正要啓生化育; 若不 時開判, 何以成無量功德乎!] 乃召桓雄天王, 授命行剖判之業. 天王奉命辭出, 乃督諸神, 令各自大顯神通, 只看風雲晦冥 深 電光閃 馳繞 雷霆震擊得, 玉女失色, 百鬼遁竄. 於是洪 肇判, 天地始分, 虛曠浩茫, 不可端倪. 乃命日月, 輪流相轉, 光麗於天, 照臨於地, 日行爲晝, 月行爲夜, 又命星辰周 蒼穹, 以定四時, 以紀年日.

이때 한 분의 큰 주신이 손을 마주잡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다 이르기를 [지금과 같이 우주의 큰 덩어리가 어둠으로 닫힌지 이미 오래되어, 천지개벽의 기운이 감싸인 채 머물러 오다가 바야흐로 낳아 길러지기를 바라니, 만약 때가 다하였음에도 세상을 열어서 구분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찌 가없는 공덕을 이룰 수가 있으리오]하고는, 환웅천왕(桓雄天王)을 불러 세상을 가르고 나누는 작업을 명하였다.

천왕은 명을 받들고 물러나와서 여러 신들을 독려하여 각자에게 스스로의 신통력을 크게 발휘하게 하니, 단지 바람과 구름이 어둑어둑한 가운데 검푸른 빛이 깊어지고 번개불이 일어나며 번쩍이는 섬광은 쏜살 같이 치달아 얽혀 드는 것만이 보일 뿐, 우뢰와 천둥소리는 맹호가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지라, 옥녀는 놀라서 낯색을 잃어버렸고 모든 도깨비들은 도망쳐 숨어 버렸다.

그리하여 아주 흐릿하게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니, 그 나누어진 처음에는 텅하니 비어 있고 휑하니 넓은 것이 아무런 구별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해와 달에게 명하여 바퀴가 굴러가듯이 서로 돌아가며 하늘에서 고운 빛을 발하여 땅에 내려 비추게 하여, 해가 가는 것을 낮으로 삼고 달이 가는 것을 밤으로 삼았으며, 또한 별들로 하여금 창공을 두루 돌게 하여, 이로서 사시(四時)를 정하고 햇수와 날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雖然天地既分, 日月輪轉, 而地界, 水火未定, 壤海混淪, 停之氣, 未卽啓發化成矣. 一大主神, 再命桓雄天王大顯法力, 只看大地, 水(涯)陸現而壤海始定, 火藏水動而萬物滋生. 於是草木托, 昆蟲 鱗介 飛禽 走獸之屬, 振振生育 繁衍充於地上三界. 盖自天地始分以來, 又十萬年矣.

그러나 비록 하늘과 땅을 나누고 해와 달을 운행하게 하였으나, 땅에는 물과 불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였고, 흙과 바다는 그 원기가 아직 나뉘지 않은 채 하나로 엉켜 있었으니, 멈추어 쌓여온 기운은 아직 열려 변화하지 못하였다. 한 분의 큰 주신이 다시 환웅천왕에게 명하여 법력을 크게 드러내게 하니, 단지 큰 땅덩이만 보이던 것에서 물이 휘돌아 나가며 물이 드러나고 흙과 바다가 비로소 나뉘어져 자리를 잡게 되니, 불의 기운은 잠들고 물의 기운이 움직여 만물이 무성하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초목은 뿌리를 내리고 곤충과 물고기 및 날짐승과 들짐승 등의 무리들은 무수히 자라나 땅 위의 삼계에 번성하여 가득하였다. 무릇 하늘과 땅이 처음으로 나누어진 이래 또 십만년이 지났다.

一大主神, 更聚衆神曰: [今乘宇宙自然之運會, 已煩汝等出力, 剖判天地, 化生萬物, 功德自固無量. 但天地之間, 宜置萬物之長, 其名曰人, 可與天地 爲三才, 而作萬物之主. 元來天地停 之氣, 散爲萬物, 而靈秀之性 貞明之氣, 則尙鍾毓而不發; 今可啓導靈秀 發放貞明, 而別作人衆, 於生之中, 自作主宰. 但此事須先有備, 不可造次.] 乃三命桓雄天王. 天王奉令, 依計頒行. 於是桓雄天王大召滿天(皇)[星]宿, 令分管上天諸事, 却令主神麾下無數小神, 一幷降落下界, 主治山岳 河川 洋海 沼澤 丘陵 原野 里社之基, 務要謹嚴平正, 不可有誤, 然後采天地靈秀之性 貞明之氣, 造成無數人生.

한 분의 큰 주신이 다시 뭇 신들을 모아 놓고 이르기를 [지금 우주의 자연스러운 기운을 타고 이미 너희들이 번거롭게 힘을 내어 하늘과 땅을 가르고 나누며 만물이 드러나게 하였으니, 그 공덕이 자고로 한량이 없구나. 그렇지만 하늘과 땅 사이에 마땅히 만물의 어른을 두어야 하기에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이니, 하늘 그리고 땅과 더불어 삼재(三才)로 삼아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원래 하늘과 땅의 멈춰 쌓였던 기운을 흩어지게 하여 만물이 되게 하였는데, 신령하고 빼어난 성질과 곧고 밝은 기운은 자못 모아 받았지만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이제 신령하고 빼어남을 이끌어 내고 곧고 밝음을 드러내게 할 수 있게끔 따로 사람의 무리를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뭇 생명 가운데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마땅히 먼저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절대 미루어서도 안된다] 하며 환웅천왕에게 세 번째로 명을 내리니, 천왕은 명을 받들어 계획대로 널리 펴서 행하였다.

이에 환웅천왕은 하늘에 가득찬 별자리를 모두 불러 하늘 위의 모든 일을 나누어 맡게 하고, 주신(主神) 휘하의 무수한 작은 신들에 명령하여 하나같이 모두 하계에 내려가 산악과 하천, 해양과 소택, 구릉과 들판 및 마을들의 바탕되는 일들을 다스리게 하며, 근엄하고 공평하게 하여 잘못이 없도록 한 후에,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빼어난 성질과 곧고 밝은 기운을 가려 모아 무수한 사람들을 만들었다.

一大主神, 乃四命桓雄天王曰: [如今, 人物業已造完矣. 君可勿惜厥勞, 率衆人, 自降落下界, 繼天立敎, 爲萬世後生之範.] 乃授之以天符三印曰: [可持此, 敷化於天下.] 桓雄天王, 欣然領命, 持天符三印, 率風伯 雨師 雲師等三千之徒, 下降太白之山 檀木之下. 太白山者, 卽白頭山也. 衆徒推爲君長, 是爲神市氏. 自草木托 禽獸滋生以來, 又十萬年也.

(다음호에 계속)

성인들의 사상

退溪 李滉과 進聖學十圖箚

퇴 계 이 황 진 성 학 십 도 차

〈지난호 이어서〉

무진 육조소(戊辰六條疏)-요지

여섯째는, 수양과 반성을 성실히 하심으로써 하늘의 권애(眷愛)를 받을 것이옵니다. <한(漢)나라>의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고한 말에 이르기를 "국가가 장차 도를 잃는 실패가 있게 되면 하늘이 먼저 재해를 내어 이를 견책하여 고하고, <그래도> 스스로 반성할 줄을 모르면 또 괴이한 변고를 내려서 이를 경계하며 두렵게 하고 <그래도 또> 오히려 고칠 줄 모르면 상하고 패하는 것이 이에 이르나니, 이로써 천심이 임금을 사랑하여 그 날을 방지하고자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이야 진실로 만세 임금들의 귀감(龜鑑)으로 가히 경솔히 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또 마땅히 내가 천심을 받드는 데 있어 무슨 도로 하여야 옳을 것인가를 알아서, 실지로 몸소 행한 연후에야, 가히 천심을 향수하고 임금의 도를 다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이상의 여섯 조목의 진술하온 바는 비록 경천동지(驚天動地)하고 사람의 이목(耳目)을 끌만한 말씀은 없사오나, 신은 떳떳한 가르침[彝敎]에 근신하여 성(性)과 도(道)에 근본하고 성현을 종주로 하여,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에 바탕해서 역사의 기록에 상고하고 시사(時事)에 징험하여서 말씀을 올린 것이옵니다.

진성학십도차 병도(進聖學十圖箚 幷圖)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臣) 이황(李滉)은 삼가 재배(再拜)하고 아뢰옵니다. 도(道)는 형상(形象)이 없고 하늘은 말이 없습니다. '하도낙서(河圖洛書)'가 나오면서 성인이 이것을 근거로 하여 괘효(卦爻)를 만들었으니, 이 때부터 비로소 도가 천하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는 넓고 크니 어디서부터 착수하여 들어가며, 옛 교훈이 천만(千萬)가지인데 어디서부터 따라 들어가리요. 성학(聖學)에는 강령(綱領)이 있고, 심법(心法:마음을 닦는 법)에는 지극히 요긴한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임금이 된 이의 한 마음[一心]은 만 가지 징조[萬機]가 연유하는 곳이요, 백 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인데, 뭇 욕심이 서로 침해하면 뭇 간사함이 서로 꿰뚫으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소홀하여 방종(放縱)이 따르게 되면, <마음의 해는> 마치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들끓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것을 누가 막으리오. 옛날의 성군(聖君)과 현명한 왕이 이런 점을 근심하였습니다.

후세의 군주(君主)가 천명을 받고 왕위에 앉아 있으면서 오만하게 스스로 성자(聖者) 같은 태도를 취하고, 왕공(王公)과 수많은 백성들의 추대에 들떠서 스스로 방자(放恣)하니, 이러다가 결국 흐트러져[壞亂] 멸망하게 되면, 이 어찌 괴이(怪異)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옛 현인(賢人)과 군자(君子)들이 성학(聖學)을 밝히고 심법(心法)을 얻어서 도(圖)를 만들고 설(說)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도(道)에 들어가는 문과 덕을 쌓는 기초를 가르친 것이, 오늘날 해와 별같이 밝아 있습니다. 이에 감히 이것을 가지고 전하(殿下)에게 진술하여, 옛 제왕(帝王)들의 공송(工誦:악공이 '시편'을 외어서 임금에게 들려주는 것)과 기명(器銘:임금의 일용 기물에 명문을 새겨 임금을 깨우치고 경계하도록 하는 것)의 끼친 뜻을 대신하고자 하옵니다.

삼가 종전에 있었던 것에서 더욱 뚜렷한 것만 골라 일곱 개의 그림을 얻고, 그 중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는 정임은(程林隱)의 그림에다가 신이 만든 두 개의 작은 그림을 덧붙인 것이요, 이 밖에 또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비록 신이 만들었으나 그 글과 뜻이 조목(條目)과 규획(規畫)에 있어서 한결같이 옛 현인(賢人)이 만든 것을 풀이한 것이요, 이것을 합하여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만들어서 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조심스럽게 꾸며 올립니다.

이것을 경연관(經筵官)에게 내리시어, 상세하게 논의해서 바로잡고 사리에 어긋난 것을 수정하여, 또 별도로 조그마하게 수첩을 만들어서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셔, 기거동작(起居動作)하실 때에 언제나 보고 살피셔서 경계삼으신다면, 신이 간절한 충정(忠情)에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연재

古 訓 新 鑑

▣ 입암서원유사 권 태 수

以責人之心으로 責己하고 恕己之心으로 恕人하라 〈명심보감〉

남을 책망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解說]

북송(北宋)의 범충선공(范忠宣公)이 자녀들을 경계하여 말하기를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남의 잘못을 책망(責望)하는 데는 밝고 아무리 지혜(智慧)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따지는 데는 흐리고 어두워져서 지나치게 관대하니 모름지기 남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자책(自責)하고 반성(反省)할 것이요,또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잘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할지니, 그렇게만 한다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 없으리라" 하였다.

순조로운 항해를 위해서 알맞은 바람이 필요하듯이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상쇄할 때 인생이란 배 역시 순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효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길이요, 아내의 마음과 행실이 어질면 남편이 번거로운 고뇌에 벗어나 일에 열중할 수 있다. 또 술을 적게 마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돈보다 의를 존중하여 집안 간의 화목과 친구 간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畫虎畫皮難畫骨이요 知人知面不知心이니라 〈명심보감〉

호랑이를 그리되 가죽은 그리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지 못한다.

[解說]

우리가 흔히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얼굴을 안다는 뜻이다. 사람의 얼굴은 천인천색(千人千色), 각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만 그 마음속까지 알기는 어렵다. 이는 마치 호랑이를 그릴 때 겉모습은 그리지만 속의 뼈는 그리지 못하는 것과 흡사하다.

[例話]

과거 길에 오른 선비가 소나기를 만났다. 선비는 갓을 벗어 품에 품고 가까운 집 추녀 밑으로 뛰어가서 비가 그치도록 기다렸다.

"큰일 났군. 갈 길은 바쁘고 그렇다고 갓을 적실 수도 없으니 이를 어쩌나?"

이때 마침 선비와 함께 비를 피하고 있던 한 노인이 점잖게 "듣고 보니 딱하구려. 내 갈모(비올 때 갓위에 덮어씌우는 기름종이로 만든 모자)를 빌려 줄터이니 쓰고 가시오."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뭐 은혜라고 할 것까지야 있겠소. 다음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건너편에 보이는 초가집을 가리키며 저기가 내 집이라고 말했다.

"돌려드리고 말고요.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갈모를 빌려 쓰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한양에 도착한 선비는 과거장에 나갔으나 아깝게도 낙방하고 말았다.

몹시 실망한 선비는 그만 노인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 후 선비는 더욱 열심히 학문을 닦아 과거에 급제함으로써 청운의 뜻을 이루었다.

선비는 조정 대신들 앞으로 나와 인사를 올리는데 그 중 한 대신이 "그대는 오래전에 길에서 소나기를 만나 왠 노인에게 갈모를 빌려 쓴 일이 있었지?"

선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앞에 있는 대신은 틀림없이 그 때 자기에게 갈모를 빌려 준 노인이었다.

"약속대로 그 갈모를 주인에게 돌려주었는가?"

선비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대신은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작은 약속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나라의 큰일을 맡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대는 집에 내려가서 약속을 지키는 도리부터 배우도록 하라!"

선비는 과거에 급제 하였으나 벼슬하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고 한다.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 총재단회비

△권오영(부총재)	60만원
△권영철(부총재)	100만원
△권정달(총재)	20만원
△권태일(고문)	20만원
△권혁승(상임부총재)	20만원
△권규화(부총재)	20만원
△권순택(부총재)	20만원
△권혁춘(부총재)	20만원
소 계	28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기범(대구)	20만원
△권순팔(안양)	20만원
△권병선(창화공)	20만원
소 계	60만원

▣ 대의원회비

△권오창(원주)	10만원
△권영창(의왕)	10만원
△권 창(시흥)	10만원
소 계	30만원
합 계	370만원

충신을 가둔 망해가는 연(燕)나라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뒤에 가서 북조를 통일하는 전진(前秦)으로 전연(前燕)에서 양침(梁琛)을 사신으로 보냈다. 이때에 전진의 황제는 영웅이라 할 부견(苻堅)이었고, 또 용맹한 장수 왕맹(王猛)이 버티고 있었다. 이때에 남쪽으로는 동진이 있어서 그 장수 환온은 북방정벌을 감행하려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전진과 전연은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모용씨가 세운 전연은 내부적으로 다툼과 시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낙양에 들어 온 동진의 환온을 협격하여 승리한 모용수(慕容垂)의 권위와 명성이 높아지자 태부인 모용평이 그를 꺼리는 분위기마저 있었다.

말하자면 유능한 사람이 공을 세우면 그 공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가 공을 세우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시기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전연의 조건이 제일 좋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알지만 양침은 전진과 외교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어서 동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했다. 또 우호국이기는 하지만 전진에 대하여서도 국가의 위신을 세워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도 하였다.

그러한 양침이 전진에 도착하니, 전진의 왕 부견은 마침 사냥을 나갔다가 전연에서 사신이 왔다고 하니, 사냥하는 곳으로 오라고 불렀다.

이에 양침은 전진왕 부견에게 외국 사신을 예의를 갖추어서 맞이하라고 촉구하였다. 사냥터에서 외국 사신을 만나겠다는 것이 예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한 국가의 사신으로서 자존(自尊)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전진의 관리와 토론을 벌이고서 양침의 논리를 당하지 못하자 결국은 부견은 행궁을 만들고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맞이하고 연회를 베풀어 양침을 접대하였다. 양침은 자기는 전연을 대표하는 사신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위신을 세우는데, 성공한 셈이다.

부견이 전연의 사정을 물으니, 모용평과 모용수가 뛰어난 인물임을 자랑하였다. 물론 모용씨 사이에 있는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은 입에 담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양침의 형 양혁(梁奕)이 전진의 상서랑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진에서는 양침에게 그의 형 양혁의 집에 묵으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형제간이기는 하지만 섬기는 나라가 다르니 공적으로 밖에 대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이러한 양침을 보고 전진왕 부견은 그를 오래 붙들어 놓고 싶었다. 그래서 한 달을 머물게 하였다가 돌아가게 했다. 예정보다 오래 전진에 머물러 있던 양침은 급히 전진에 대한 보고를 보고하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서 자기 나라 전연으로 돌아왔다. 이때 전연에서는 이미 모용씨 사이에 틈이 생겨서 명장 모용수가 견디지 못하고 전진으로 망명하였다.

전연으로서는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이 전진으로 망명한 상황인데, 양침이 전진에서 오자 전진의 상황을 물었다. 양침은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말했다. '전진 사람들은 매일 같이 군대를 살펴보고 양식을 많이 모아놓고 있습니다. 저 양침이 이를 보건대 우리 연나라와 전진 사이에 맺은 화의는 반드시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오왕 모용수가 또 그곳으로 가서 귀부하였으니, 전진은 반드시 우리 연을 넘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의당 일찍 이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전진이 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으니 대비하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전연에서 실제로 권력을 쥐고 있는 태부이며 사도인 상용왕 모용평은 이러한 양침의 말이 마음에 안들어서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양침은 전진이 전연과 회의를 맺은 것은 동진의 환온이 북진하려는 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화의를 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모용평은 다시 부견과 왕맹의 사람됨을 물었는데, 양침은 또 대단한 인물이라고 대답했다. 기대한 대답이 아니었다. 그 위에 양침을 따라서 전진에 부사(副使)로 갔던 구순(苟純)이 양침이 전진에 가서 그곳의 장군 왕맹과 왕부견과 친했다고 하자 양침을 간첩이라도 된 양 감옥에 넣어 버렸다.

그러나 사태의 진전은 모용평이나 전연왕 모용위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다. 전진에서는 왕맹이 이끄는 군대로 전연을 정벌하였다. 그리하여 전연은 그 다음 해인 서기 370년에 멸망한다. 위기라는 말을 듣기 싫어 한 전연왕 모용위와 바보 같은 권력자 모용평이 스스로 망해버린 것이나 같은 결과였다.